

대명사의 두 가지 해석*

강명윤
(고려대학교)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interesting kinds of English facts can be accounted for, if we assume English pronouns to be "translated" at some level after LF as two different entities. One such entity would be a function, subject to the Binding principles, that determines its reference contextually; the other entity would be a (bound) variable, which functions like a "hole" that is to be filled in by being bound by the antecedent. We also argue that Korean "caki" can be thought to belong to the second category, purely functioning as a bound variable; and that Korean "ku" should belong to the first category, a function that determines its reference contextually. This Korean fact, we believe, can be counted on as a convincing argument for the position supported in this paper.

1. 서론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 가. 기존의 동지표(indexing)를 가정할 때, 이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 나. 문장의 모든 명사요소들은 지표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일부 문장요소들은 지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본 논문은 명사구들에 지표가 부여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대명사에는 지표가 부여되지 않고 해석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사실, 중요한 문제는 지표부여의 문제라기보다, 동일지시관계이론(theory of co-referentiality)의 문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대명사의 해석의 중요한 일부는 동일지시관계이론에 기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특히 우리말의, ‘그’와 ‘자기’를 대조하면서, 대명사에는 지표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하지만, ‘자기’와 같은 요소의 해석에는 지표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인다. 최근의 경향은 결속이론에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최소주의 이론에서 결속이론을 어떻게 구축하건 간에, 본 논문에서 대명사가 해석되는 두 가지 상이한 방법의 설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지표 해석의 문제

지표의 존재를 인정할 때, 명사들은 자유롭게 지표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전제되며, 이들은 문법에 의해 명사들에 자유롭게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명사가 같은 지표를 가진다면, 그들은 동지표를 가진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명사에 동지표가 주어졌다고 하면, 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명사는 이 세상의 어떤 특정한 대상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관계는 대체로 하나의 실제의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관계, 즉 동일지시관계(co-referentiality)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에는 쉽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 ‘KLing Vol 1’의 초청 논문임.

2 강명윤

이 동일지시관계이론에 따르면, 두 개의 명사가 동지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실제세계의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되며, 두 개의 명사가 동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실제세계의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동일지시관계이론을 결속이론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에서:

- (1) 가. *John_i likes him_i.
- 나. John_i hates himself_i.
- 다. *Tom_i knows that John hates himself_i.
- 라. *He_i likes John_i.
- 마. *Tom_i thinks that John likes [the man]_i.

다음과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다. (1 가)의 문장은 John 과 him 이 동일한 지시관계를 갖는 해석을 가질 수 없으며, (1 나)의 문장은 John 과 himself 가 다른 지시관계를 갖는 해석을 가질 수 없고, (1 다-마) 등도 다 같은 방식으로 해석된다.

동일지시관계이론을 적용할 때, 이들의 해석방식은 당연한 것 같지만, 결속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동일지시관계이론의 해석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cf. Lasnik(1981)).

- (2) *They think he will win.*
- (3) *John told Bill that they should leave.*

(2)의 예를 살펴보면, 이 문장의 해석에는 he 가 they 의 일부분인 해석이 포함된다. 즉, he_C they 의 해석도 이 문장의 해석으로서는 가능한 것이다. 또한, (3)의 문장의 가능한 해석 중에는 John 과 Bill 이 they 의 집합 속에 포함되는 해석도 포함된다. 하지만, (2)와 (3)의 이텔릭체된 부분에 지표를 부여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지표부여만이 가능하다.

- (2') They_i think he_j will win.
- (3') John_i told Bill_j that they_k should leave.

이러한 지표부여만이 가능한 이유는 they 는 그 자체로 복수명사이므로, 단수명사인 he 나 John, Bill 과 동지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 (2', 3')의 지표부여만이 가능하다면, 동일지시관계이론에 따르면, (2')에서 they 는 he 와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3')에서는 they 가 가리키는 대상물이 John 이 가리키는 대상물과 Bill 이 가리키는 대상물을 포함하는 해석이 불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지시관계이론은 그 자체로 당연히 옳은 것 같지만, (2,3)의 문장의 올바른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약점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 방법은 어떤 명사들이 동지표를 가지면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사들이 동지표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동일지시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2')의 지표관계에서, they 와 he 가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 속에는 they 가 he 를 포함하는 해석이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3')에서도 they 가 John 이나 Bill 과 달라야 하지만, 그러한 해석 중에는 John 과 Bill 이 they 의 집합에 포함되는 해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예측하게 된다. 즉 이렇게 동일지시관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앞서의 어려웠던 (2,3)의 풀기 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지시관계의 부정적 해석” 역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의 문장을 살펴 보기로 하자.

(4) *They like him.*

결속이론에 따르면, 이 문장에서 *they* 와 *him* 은 서로 다른 지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결속이론에 “동일지시관계의 부정적 해석”을 적용한다면, *they* 와 *him* 은 서로 다른 지표를 가지되, *they* 속에 *him* 이 포함되는 해석은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4)의 문장의 해석 중에 *they* 속에 *him* 이 포함되는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찍이 Higginbotham(1983)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 바 있었다. 첫째 방식은 지표를 하나의 지표집합으로 간주하고, 그 집합 속에 여러개의 지표가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의 문장은 다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5) $They_{\{i,j\}}$ think $he_{\{i\}}$ will win.

이러한 복합지표를 부여한 이후에, 동지표이론을 재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 (6) (i) 명사들이 동지표된 경우는 복합지표가 완전히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ii) 동지표가 되지 않은 복합지표는 내부의 일부 지표들이 겹치는 것을 허용한다.

동지표이론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곧 동일지시관계이론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 즉 동일지시관계이론을 이런 식으로 수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일지시관계이론을 이렇게 당연하지 않게 한다면, 이런 동일지시관계이론이 문법의 어느 곳에서인가 자의적으로 기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언어문법의 모듈에서 그러한 동일지시관계이론이 어디에 기술되어야 할 지 불분명하다.

Higginbotham 이 제시했던 또 다른 방법은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화살표를 사용하여 명사들 사이의 지시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화살표라는 새로운 도구를 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절에서 다룬 모든 문제가 한 문장에 나타나는 모든 명사의 지표가 의무적으로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사들에게 지표가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더구나 이 경우, 즉, 지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의미해석의 기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봄으로서 본절에서 제시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3. 대명사의 지시관계: 지시관계의 자유로운 결정

앞서 보았듯이, 동일지시관계이론의 문제는 바로 문장의 도출 초기부터 모든 명사들의 지시관계가 지표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데 있었다. 즉, 문장의 도출초기에 모든 명사들에게 지표가 자유롭게 부여되면서부터, 그들 명사들의 지시관계가 결정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대명사에 관한 한 지시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형식문법적 접근에서 일찍이 Hausser(1979)는 대명사를 한정기술표현(definite descriptions)으로 해석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형식문법적 접근법을 받아들여, 대명사는 단지 지표만 자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시관계를 찾아낼 수

4 강명윤

있는 하나의 함수로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기로 한다. 따라서, 대명사의 지시관계는 좁은 의미의 언어능력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대명사의 지시관계는 지표부여라는 기제를 통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 자체의 능동적인 함수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형식의미론에서 한정기술표현이 해석되는 동일한 방식으로 대명사도 하나의 함수로서 해석된다고 본다. 좀더 쉽게 표현한다면, 대명사는 어떤 문맥(context)함수 F_x 로서 해석되는데, 이것은 대명사의 지시관계를 결정해주는 어떤 함수이다. 예를 들면,

(7) They think that he loves Mary.

위의 문장에서 he 는 하나의 문맥함수 F_x 로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they 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하나를 가리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즉, 문맥함수 F_x 는 그 치역으로 they 의 구성원의 일부를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음의 (8)에서

(8) John told Bill that they will win.

이 문장에서도 they 는 문맥함수 F_x 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치역으로서 John 과 Bill 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대명사들을 문맥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앞서의 절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표부여를 완전히 포기하여야 하는가? 필자는 지표에 대한 동일지시관계이론이 완전히 당연한 것으로 존재하는 한, 이러한 당연한 동일지시관계이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경우 지표들은 수의적으로 부여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지표의 해석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함께 이러한 동일지시관계이론에 기초한 촘스키이론에서의 결속이론 역시 포기하지 않는다. 일례를 들며,

(9) 가. John thinks that *the man* likes Mary.

나. John thinks that *he* likes Mary.

(7 가)에서 the man 이 John 으로서 해석될 수 없는 이유는 결속이론 C 에 근거한다고 본다. 즉, 우리의 관점에서는 the man 이 문맥함수 G_x 로 바뀔 때, 그 지시관계의 치역의 내용의 한계(boundary)를 결정해 주는 이론을 결속이론 C 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관점에서 대명사 he 가 한정표현과 같은 문맥함수 F_x 로 해석된다고 볼 때, 왜 (7 나)의 해석에서 he 는 John 을 가리킬 수 있는가? 이것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7 나)의 he 가 문맥함수 F_x 로 바뀌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대명사를 문맥함수로 바꾸는 것은 수의적 현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대명사가 문맥함수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기서 he 는 동일지시관계에 의해 해석되고, 그것은 결속이론 B 를 만족하므로 he 는 John 을 가리키는 것이다. 둘째, 이 대명사 he 가 문맥함수 F_x 로 바뀌어 해석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 경우, 우리는 문맥함수 F_x 의 치역내용의 한계조건(boundary conditions)이 결속이론 B 라고 보게 된다. 즉, 문맥함수 F_x 는 그 치역내용의 한계조건으로 결속이론 B 를 가지는 문맥함수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정기술의 문맥함수 G_x 와 다른 것이다.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한정표현(definite descriptions)은 항상 문맥함수로만 해석되지만, 영어의 대명사 he 와 같은 요소는 지표를 가진 조용적(anaphoric) 해석과 지표를 가지지 않은 문맥함수적 해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속이론 B 역시 두 개의 해석을 가지게 된다. 하나는 대명사가 조용적으로 해석될 때, 그 분포를 결정해주는 이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다른 경우는 대명사가 문맥함수 Fx 로서 해석될 때 그 지역의 한계조건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어의 대명사 he 의 해석의 범위는 조용적 해석의 내용과 문맥함수의 지역의 내용의 합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이러한 논지는 다음의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국어에서는 두 가지의 대명사가 존재한다고도 보아지며, 하나는 문맥함수 Fx 로 의무적으로 해석되는 ‘그’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적으로 조용적으로 해석되는 ‘자기’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4. 국어의 대명사 ‘그’

국어의 ‘그’는 본래 ‘그 사람,’ 또는 ‘그 분’ 등에서 한정사로 기능하던 요소였는데, 그것이 대명사로 귀착되게 되었다. 본래 ‘그 사람’ ‘그 여자’ 등은 자신을 성분통어하는 요소를 가리킬 수 없는 요소이다.

- (10) 철수는 그 사람이 산 꽃을 매우 예쁘다고 생각했다.
- (11) 영희는 그 여자에게 준 꽃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

이 예문에서 보듯, ‘그 사람’ ‘그 여자’는 각각 철수와 영희를 가리킬 수 없다. 촘스키이론으로 볼 때, 그 이유는 ‘철수’ ‘영희’등의 명사가 이들을 성분지휘하고 있으므로, R-expression 인 ‘그 여자’ ‘그 사람’은 이들을 가리킬 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의 이론으로 바꿔 말한다면, ‘그 여자’ ‘그 사람’은 한정기술표현이므로, Gx 라는 문맥함수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이 문맥함수의 지시관계의 지역의 한계조건이 바로 결속조건 C 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대명사 ‘그’가 사용된 다음 문장들은 매우 좋다.

- (12) 철수는 그가 산 꽃을 매우 예쁘다고 생각했다.
- (13) 영희는 그녀에게 준 꽃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

이러한 문장들을 보면, 우리말의 ‘그’도 영어의 대명사 he, him 또는 she, her 에 매우 근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말에서도 이들에 대해 결속조건 B 가 준수된다.

- (14) *철수_i는 그_i가 싫다.

이 문장에서 ‘철수’가 ‘그’를 가리킬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앞으로 논의할 ‘자기자신’을 사용하여 ‘철수는 자기자신이 싫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속이론의 조건 A 의 문제인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상술하지 않을 것이다.

6 강명윤

이상에서 본다면, 국어의 대명사 ‘그’나 ‘그녀’는 영어의 대명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즉 국어의 ‘그’는 양화사 ‘누구나’ ‘누군가’와 같은 요소들과 동일지시관계를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이다.¹

- (15) *누구나 i 가 i 가 산 꽃을 매우 예쁘다고 생각했다.
- (16) *누군가 i 가 i 에게 준 꽃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

국어에서 이렇게 ‘그’가 그 선행사로 양화사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어에서 보통 양화사와 같은 것이 어떤 대명사를 결속하면, 그 대명사는 결속변항(bound variable)으로서 기능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 (17) Everyone thinks that he is honest.

이 문장은 두 개의 해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내포절의 he가 주절의 everyone과 다른 지시내용을 가진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내포절의 he가 주절의 everyone에 결속된 해석이다. 전자의 경우, he는 everyone과는 상관없는 discourse 상의 제 3의 인물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 he는 everyone의 지시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he역시 동일하게 변화한다. 예를 들면, everyone이 {John, Bill, Tom, Mary}로 구성되어 있다면, everyone 각각의 멤버에 따라 그 각각의 멤버가 자신을 honest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해석을 결속변항(bound variable)의 해석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본 논문의 이론에 따르면, 전자의 해석은 문맥함수적 해석이고, 후자의 경우는 조용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영어의 대명사 he의 해석의 내용은 이 두 가지 해석의 합집합인 것이다.

이제 우리말의 (15) (16)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말에서 이들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것의 이유를 밝힘에 있어, 본고에서는 우리말의 ‘그’가 영어와는 달리 결속변항의 해석, 즉 조용적 해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즉, 영어의 경우, 대명사의 he는 문맥함수의 치역의 내용과 조용적인 지시관계의 총화이지만, 우리말의 ‘그’와 ‘그녀’의 해석은 오직 문맥함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12)(13)(14)에서와 같은 대명사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그 문맥함수의 치역이 결속조건 B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의 문장들에서 보듯,

- (18) 그들은 그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 (19) 철수는 영희에게 그들이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18)에서 ‘그’가 ‘그들’의 집합 속에 포함되는 해석이 가능하고, (19)에서 ‘철수’와 ‘영희’가 ‘그들’의 집합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위의 주장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예이다.

¹ 이것은 ‘그’에 보통의 스트레스를 부여할 경우이다. 화자에 따라서는 이들 ‘그’에 아주 약한 스트레스를 부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이 문장에서도 ‘그’가 양화사를 가리킬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화자들은 영어의 영향을 받은 화자들이라고 보고 논의에서 제외한다.

5. 우리말의 다른 조응적(anaphoric) 대명사 ‘자기’

이제 우리말의 다른 대명사적 요소인 ‘자기’에 대해서 논의하자. ‘자기’가 대명사(pronoun)인가 아니면 ‘대용사’(anaphor)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이 대용사라면, 그것은 결속조건 A 를 지켜야 하는데, ‘자기’는 결속조건 A 를 지키지 않는다. 다음의 예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 (20) 철수는 [D 자기가 영화를 사모하고 있다고] 믿는다.
- (21) 영화는 [[D 자기에겐 보내온] 편지를] 소각해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두 예에서, ‘자기’가 대용사라면, ‘자기’가 결속되어야 하는 최소영역은 D 인데, 이 속에서 ‘자기’는 결속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의상 ‘자기’는 대용사(anaphor)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서도 ‘자기’가 대용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결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가 그것을 보인다.

- (22) *자기가 떠났다.
- (23) *영화 i 가 자기 j 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와 같은 문장은 ‘자기’가 ‘당신’ ‘에인’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지 않는다면 비문법적이다. (23)에서는 ‘자기’가 ‘영화’에 의해서 결속되지 않는다면 비문이다. 즉, (22)(23)은 ‘자기’가 문장에 나타났다면, 그것이 어떤 다른 명사에 의해 결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보통 ‘자기’가 대명사와 다르다는 증거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22)과 (23)의 예를 바탕으로 국어의 ‘자기’를 대용사로 결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20)(21)의 자료가 보이는 ‘자기’의 성질이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이며, 본고의 입장에서는 대명사도 앞에서 보았듯 조응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고에서는 대명사 ‘그’는 의무적으로 문맥함수로 해석되는 대명사인데 반해, 대명사 ‘자기’는 의무적으로 조응적으로 해석되는, 즉 결속변항으로 해석되는 대명사라고 보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듯이,

- (24) 누구나 i 자기 i 가 산 꽃을 매우 예쁘다고 생각했다.
- (25) 누군가 i 가 자기 i 에게 준 꽃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

대명사 ‘자기’는 양화사의 결속변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² 양화사가 나타나는 결속변항의 해석은 보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즉, ‘누구나’가 all x 로 해석되고, ‘자기’가 변항 x 로 해석되는 식이다.

- (24') all x [x thinks [that the flower [x bought] is pretty.]]
- (25') some x [x is thankful for the flowers that are given to x]

²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보듯, ‘자기’가 항상 양화사에 의해서 결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철수는 누군가에게 자기가 바보라고 말했다.

여기서 ‘자기’는 ‘누군가’에 의해 결속될 수 없다. 이러한 효과는 ‘자기’의 주어지향성효과라고 부르는데, 본문의 나중에 설명될 것이다.

8 강명윤

이 해석에서 ‘자기’의 자리에 있는 변항 x 는 ‘자기’가 결속변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x 는 'all x ' 또는 'some x '가 변함에 따라 같이 변화(co-vary)하는 것이다. (24)(25)가 (24')(25')으로 해석가능한 것은 그곳의 ‘자기’가 의무적으로 조용적 요소이며, 문맥함수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앞서의 (15)(16)이 (24')(25')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은 그곳의 대명사 ‘그’가 조용적 요소로 해석될 수 없고, 문맥함수적 요소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곳의 ‘그’는 의무적인 문맥함수적 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양화사와 같이 나오지 않는 보통의 경우 그 ‘자기’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 (26) 철수는 자기의 여자친구를 만났다.
- (27) 영희는 자기가 실수했음을 인지하였다.

‘자기’는 주어를 가리킬 수 있는데, ‘자기’가 결속변항으로만 기능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지시관계가 가능한가?

일찍이 Reinhart(1983)은 다음과 같은 영어의 동일한 문장이,

- (28) John thinks that he is honest.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해석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 (29) John λx [x thinks that he is honest]]
- (30) John λx [x thinks [that x is honest]]

Reinhart 는 (29)번의 경우의 대명사의 해석을 ‘지시적’ (referential) 해석이라고 했고, (30)번의 해석을 ‘결속적 대명사’(bound pronoun)의 해석이라고 불렀다. (29)의 해석은 대명사가 독립적 지시관계를 가지는 해석이고, (30)은 서술어과 서술관계를 가지는 주어가 자신을 ‘되돌이켜’ 가리키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주어가 양화사가 왔을 때는 꼭 나타나야 하는 해석이다.

이러한 Reinhart 의 입장을 지지할 때, 우리말의 경우 ‘자기’가 등장했을 때의 해석은 (30)의 경우의 해석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30)의 해석은 주어-서술어 관계를 매개로 해서 성립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주어지향성이 의미하는 바인 것이다. 즉 국어에서는 ‘자기’가 주어를 가리키지 않는 다음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 (31) 철수는 영희를 자기 방에서 만났다.
- (32) 영희는 철수를 자기의 침대에 누워서 보았다.
- (33) 영희는 철수의 책을 자기 방에서 보았다.

(31)에서 ‘자기’는 영희를 가리킬 수 없다. (32)의 경우에도, ‘자기’가 철수를 가리킬 수 없으며, (33)의 경우도 그렇다. 이것이 유명한 ‘자기’의 주어지향성이다.³ 이러한

³ 일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자기’가 주어가 아닌 요소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 같다.

- (i) 철수가 영희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화자에 따라서는 (i)에서 ‘자기’가 영희를 가리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i)의 문장의 도출과 정에서 “영희”가 주어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반증하는지도 모른다.

주어지향적 조건이 ‘자기’에게 존재하는 것은 (30)에서 보듯 이러한 해석이 주어-서술어 결합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말의 대명사 ‘자기’는 문장에서 변항 x 의 ‘구멍’으로 표시되는 조용적 요소이며, 그러한 ‘구멍’은 주어-서술어관계에서 생기는 ‘구멍’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33)의 경우는 ‘철수’가 ‘자기’를 성분통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철수를 가리킬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 역시 ‘자기’가 조용적 대명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말의 ‘자기’는 대명사이되, 조용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대명사이다. 한편, 우리말의 ‘그’는 같은 대명사이지만, 문맥함수로서만 해석될 수 있는 대명사이다. 이렇게 국어에서 조용적 대명사와 문맥함수적 대명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영어에서 대명사가 때로는 조용적으로 때로는 문맥함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6. 결론

이상에서 영어의 대명사의 해석에 대해서 논하였다. 지표의 부여를 바탕으로 한 동일지시관계이론에서는 모든 지표가 의무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지표부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명사에는 지표가 수의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 대명사에 지표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은 문맥함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어에 두개의 대명사가 존재하여, 하나의 대명사는 필수적으로 문맥함수로 해석되어야 하고, 다른 대명사는 지표를 가진 변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최근의 촘스키이론에서 결속이론상 지표부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어떤 결속이론을 설정하든 간에, 대명사의 이러한 두가지 해석이 참조되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Bach, Emmon, and B. Partee. 1980. Anaphora and Semantic Structure. In Kreiman K.J. and A.E. Oteda. 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Pronouns and Anaphora*. CLS. Chicago.
- Banfield, A. 1973. Narrative Style and the Grammar of Direct and Indirect Speech, *Foundations of Language* vol. 10.
- Chomsky, N. 1980. On Binding, *LI* 11.1.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MIT Press.
- Evans, Gareth. 1980. Pronouns. *LI* 11. pp-337-362. MIT Press.
- Hausser, R. 1979. How Do Pronouns Denote? *Syntax and Semantics* 10. Academic Press.
- Higginbotham, J. 1980. Pronouns and Bound Variables. *LI* 11. pp-679-708. MIT Press.
- Higginbotham, J. 1983. Logical Form, Binding, and Nominals. *LI* 14.3. MIT Press.
- Lasnik, H. 1976. Remarks on Co-reference. *Linguistic Analysis* 2. 1-23.
- Lasnik, H. 1981 On Two Recent Treatment of Disjoint Reference. *Linguistic Research* 1.
- Reinhart, T. 1980. Syntactic Domains for Semantic Rules. In Guenther F. and S.J. Schmidt. Eds. *Formal Semantics and Pragmatics for Natural Languages*. Reidel.
- Reinhart, T. 1983. *Anaphors and Semantic Interpretation*. Croom Helm. London & Canberra.

강명윤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mykang@korea.ac.kr